

원희룡 장관,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, 유사시설 긴급점검 지시(1보)

- 29일 안양성남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통제실 찾아 피해 상황 점검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(목)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, 안양-성남 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 통제실을 방문,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하였다.
-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,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,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.
- 원 장관은 “먼저, 이번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고,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.” 고 말했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조속히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하고, 소방당국, 경찰과 함께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” 과 특히, “방음터널 및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계획을 수립·시행 할 것” 을 지시하였다.

2022. 12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